

피프티 사운즈

전시의 제목 «피프티 사운즈»는 일본 문학 번역가인 폴리 바튼의 에세이집 『Fifty Sounds』를 발음한 것이다.¹ 바튼이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언어를 배우며 수집하고 정리한 이 책은 사전에 가깝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 사전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토대로 지어 낸 의성어와 의태어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민민’은 공기가 비명 지르는 소리, ‘보로보로’는 일상이 무너지는 중요한 소리, ‘바사리’는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의 소리다. 그에 의하면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르는 ‘오노마토피아(onomatopoeia)’는 단순히 문자화된 소리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크고 작은 순간들(사람이나 사물, 동식물의 움직임, 모양, 소리)을 흉내 낸 시도의 결과이자 문자의 조합과 발화를 통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언어적 도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노마토피아를 문자와 소리, 이미지와 움직임, 실제와 재현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세 명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 작가의 작업은 회화를 기반으로 자신이 감각하는 현실을 탐구하고 수집하며, 다양한 형상과 움직임, 소리를 새로운 시각적 언어의 조합을 통해 재현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오노마토피아적이다. 몽게지 은카파이(Mongezi Ncaphayi), 조지나 그라트릭스(Georgina Gratrix), 가브리엘

1 Polly Barton, *Fifty Sounds* (London: Fitzcarraldo Editions, 2021)

크루거(Gabrielle Kruger)는 회화를 통해 특정 서사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갤러리 층별로 구성된 그들의 평면 작업은 오히려 작가 개인의 사전에서 선별된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케이프타운이 아닌 서울에서 마주하게 된 이 단어들은 자칫 생소하게 읽히거나 들리기도 하고, 뜻밖의 친숙함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작가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몽게지 은카파이의 즉흥성이 돋보이는 채색 연작은 보고 읽는 것만큼 듣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방식의 듣기”를 강조하는 그는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물을 머금은 종이 표면에 스며드는 잉크의 색상과 그 위에 멜로디처럼 얹히는 선,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패턴과 파편화 된 시각적 요소들이 떠다닌다. 매체가 반응하는 방식과 속도에 맞춰 즉흥적으로 화면을 채워 나가는 은카파이에게 그림은 〈Serpents and Visions〉와 같이 요동치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Sanctified blues II〉처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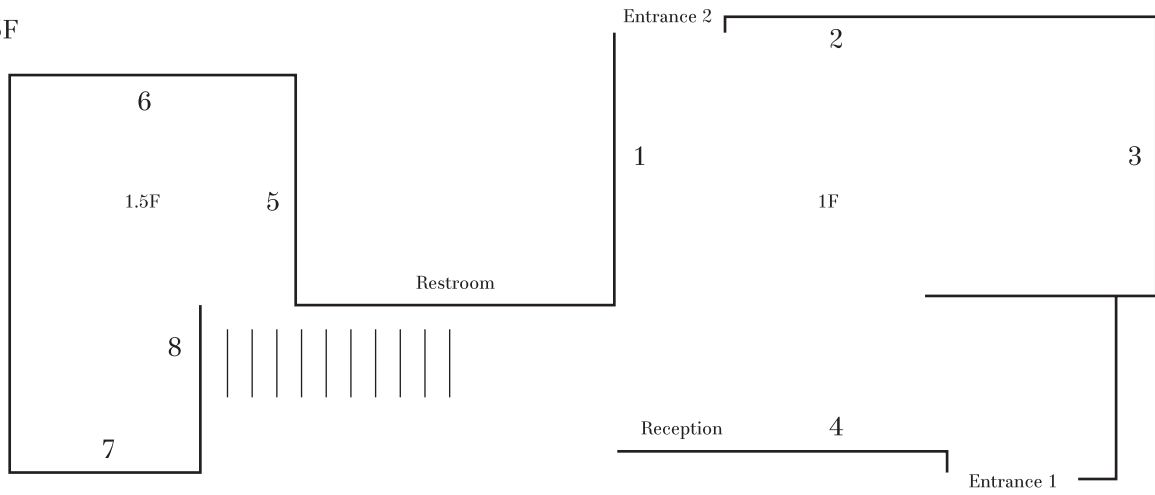
자신의 회화 작업을 반복 재생 가능한 팝송에 비유하는 조지나 그라트릭스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장면, 동작, 상징, 단어에 집중해 왔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그는 깊은 위안과 동시에 불안의 공간이기도 한 집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심화하고자 했다. 대형 캔버스에 화려한 색상의 물감을 두껍게 덧칠하는 방식으로 마티에르를 강조한 그의 기존 작업과는 차이를 두는 회색 톤의 〈Common Time 2〉는 격자 형태로 설치된 각각의 작은 캔버스에 앵무새, 꽃, 개, 일그러진 얼굴, 해변의 사람 등을 담고 있다. 모두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전시에 소개된 초상화를 비롯한 다른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똑똑(knock knock)” 처럼 익숙한 의성어도 포함되는데, 작가는 한 단어가 반복됨에 따라 특정 소리를 묘사하게 되는 언어의 특징에 주목하며 이를 유머러스한 요소로 줄곧 작품에 등장시킨다. 반복성은 <Notes from Fashion 1, 2, 3> 연작이 동일한 이미지를 연속해서 변주하는 표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고체화된 아크릴 물감을 쌓거나 긁고, 자르고 엮어서 완성한 회화-조각을 선보여 온 가브리엘 크루거의 시선은 집이 아닌, 케이프타운의 자연으로 향한다. 액체 상태의 물감을 칠하고 바르는 개념에서 벗어나 플라스틱처럼 유연한 고체 상태로 굳어진 물감을 활용하는 크루거는 자신만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재현해 왔다. 예를 들어 이번 전시에 포함된 <Coral Carnation>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케이프타운의 씨 포인트 산책로(Sea Point Promenade)를 따라 해변으로 밀려들어 온 해초와 다시마에서 영감 받은 것으로, 철썩이는 파도에 의해 남겨진 잔재들을 보며 작가는 스튜디오에 버려진 물감 조각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물성을 통해 회화의 시간성을 탐구하는 크루거의 작업이 역동적인 생태계의 모습 대신, 자연이 순환하는 힘에 의해 켜켜이 쌓이고, 힘없이 쓸려오고, 형태를 알 수 없이 남겨진 것들의 속삭임을 연상시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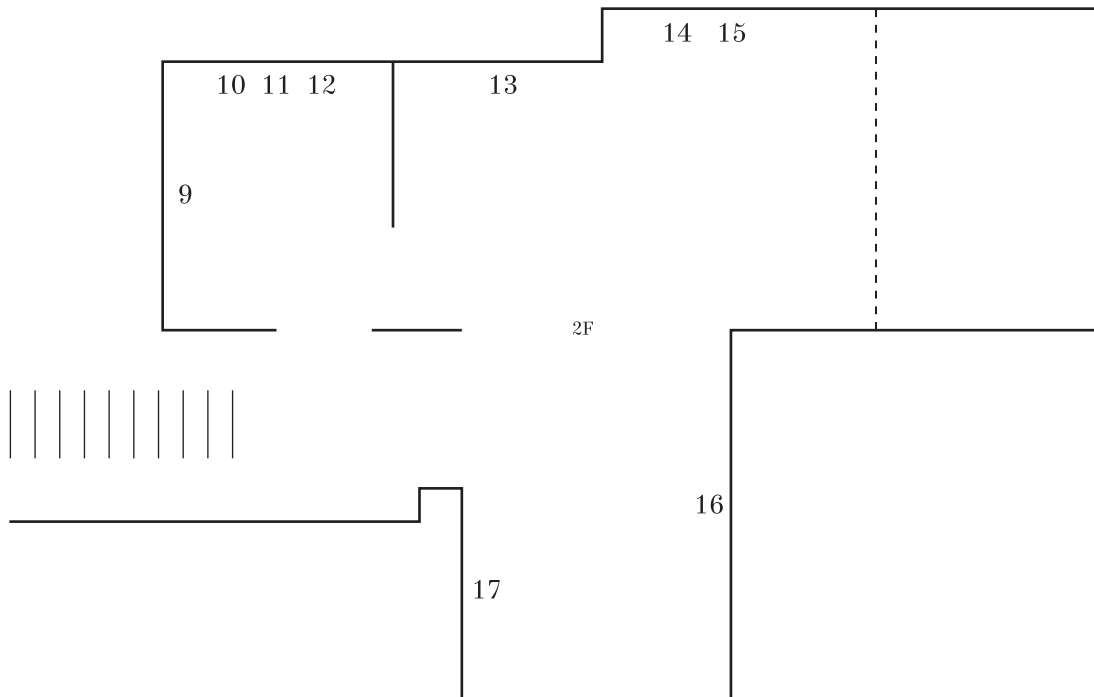
50가지 소리를 의미하는 ‘피프티 사운즈’는 동시다발적이고 다성적인 소리를 암시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언어의 구조와 체계 안에서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회화의 언어를 해체하는 대신,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토대로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한다.

1F & 1.5F



- 1 Mongezi Ncaphayi, *Ode To The Afflicted Ones*, 2021, Indian ink and Watercolour on Fabriano, 115×100cm
- 2 Mongezi Ncaphayi, *Sanctified blues II*, 2019, Indian ink and Watercolour on Cotton paper, 199×140cm
- 3 Mongezi Ncaphayi, *Serpents and Visions*, 2021, Indian Ink and Watercolour on Fabriano, 140.5×140cm
- 4 Mongezi Ncaphayi, *I forget to remember*, 2021, Indian Ink and Watercolour on Fabriano, 76×57cm
- 5 Georgina Gratrix, *Lilo Lady*, 2022, Oil on canvas, 23.5×30.5cm
- 6 Georgina Gratrix, *Common Time (Part Two)*, 2021, Oil on Belgian Linen and Canvas 23.5×30.5cm(each)
- 7 Georgina Gratrix, *Self Portrait (Parrot)*, 2021, Oil on canvas, 60×50cm
- 8 Georgina Gratrix, *The Swimmer*, 2022, Oil on canvas, 23.5×30.5cm

2F



- 9 Georgina Gratrix, *Active People*, 2021, Oil on Belgian Linen, 70×60cm
- 10 Georgina Gratrix, *Notes from Fashion 1*, 2021, Oil on canvas, 60×50cm
- 11 Georgina Gratrix, *Notes from Fashion 2*, 2021, Oil on canvas, 60×50cm
- 12 Georgina Gratrix, *Notes from Fashion 3*, 2021, Oil on canvas, 60×50cm
- 13 Gabrielle Kruger, *Coral Carnation*, 2022, Acrylic on Board, 140×90cm
- 14 Gabrielle Kruger, *Sea Meadow I*, 2022, Acrylic on Board, 85×65cm
- 15 Gabrielle Kruger, *Sea Meadow II*, 2022, Acrylic on Board, 85×65cm
- 16 Gabrielle Kruger, *Scrawlings*, 2020, Acrylic on Board, 85×65cm
- 17 Gabrielle Kruger, *Looping Around*, 2020, Acrylic on Board, 85×65cm

몽계지 은카파이(b.1983)

몽계지 은카파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노니(Benoni) 출생으로 케이프타운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는 에쿠르홀레니 이스트 칼리지 베노니에서 미술과 디자인 과정을 졸업한 후 아티스트 프루프 스튜디오에서 전문 판화 과정을 수료했다. SMAC(2021-2016, 케이프타운 외), 데이비드 크루트(David Krut) (요하네스버그, 2018)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칸이실리 엠봉와(Khanyisile Mbongwa) 기획의 제 1회 스텔렌보스트리엔날레 «Tomorrow there will be more of us»에 참여했고, 노벨 파운데이션(2022, 케이프타운), SMAC(2021, 요하네스버그), ISANG(2019,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미술관(JAG) (2019,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그룹전을 가졌다. 2013년 압사 아틀리에 제라드 세코토 어워드(Absa L'atelier Gerard Sekoto Award)의 수상자로 파리 국제예술공동체에서 3개월간의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2019년 아프리카 미술상(Africa First Art Prize)을 수상했다.

조지나 그라트릭스(b.1982)

조지나 그라트릭스는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자랐다. 케이프타운 미카엘리스 미술대학(Michaelis School of Fine Art)에서 회화 전공으로 졸업했다. 그라트릭스는 콰줄루 나탈소사이어티 오브 아트(2021, 더반), 노벨 파운데이션(2021, 케이프타운), 니코덤 갤러리(2020, 로스엔젤리스), SMAC(2020-2012, 케이프타운 외)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그룹전으로는 SMAC(2021, 요하네스버그), 페이지 갤러리(2021, 서울),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2019, 로스엔젤레스), 니코덤 갤러리(2019, 로스엔젤리스), 요하네스버그 미술관(JAG) (2019, 요하네스버그) 등이 있다. 그라트릭스는 제50회 아트 브뤼셀에서 디스커버리 프라이즈를 수상했고,

앰퍼샌드(Ampersand) 펠로우십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어 미국 뉴욕시 앰퍼샌드 재단의 레지던시(2018, 뉴욕)에 참가했다.

가브리엘 크루거(b.1993)

가브리엘 크루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스텔렌보스 대학교에서 순수미술로 졸업했으며, 케이프타운 미카엘리스 미술 대학에서 순수미술 석사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마르타 모리아티 아트 원도(2022, 2019, 마드리드), SMAC(2020-2019, 케이프타운, 스텔렌보스), 등이 있다. SMAC(2022, 2021, 요하네스버그), 리치 원(2021, 영국), 갤러리 아이젠+아트(2021, 라이프치히) 아고라 갤러리(2018, 뉴욕)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구찌 가든, 노벨 파운데이션 등에서 페인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